

불자 세상보기



종호 스님
동국대 교수·
종학연구소장

세상이 어수선하다. 언제나 그렇지만 요즘은 특히 그러 보인다.

일본을 비롯해 세계 여기저기에서 지진 등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서 세습인가 하는 것이 발견되고 있어 국민을 긴장시키고 있다. 뉴스에 보도되는 소식들도 맑고 향기로운 내용보다는 눈살 찌푸리게 하는 불성 사나운 것들이 더 많다. 이런 혼란기에 우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고 있다. 부처님이 오신 참뜻이 더욱 중요한 까닭이다.

부처님은 2600여 년 전,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카필라국의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했다. 태자의 상호를 본 아시타 선인(仙人)은 "세속에 남아 왕위를 계승하면 전 세계를 통일하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만약 출가하면 반드시 붓다가 될 것"이라 예언했다.

자신의 참모습에 궁금해 한 적 있는가

"태자가 출가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은 부왕의 염려와 배려로 싯다르타는 인간 세상의 화려함과 편안함에 갇혀 지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싯다르타는 동서남북의 성문 밖을 찾았다. 그곳에서 싯다르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속의 부와 명예를 탐하기보다 늙음과 병들, 죽음에 고민했다. 생노병사는 모든 생명이 가진 근원적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싯다르타는 생각했다. "아무리 지상 최고의 지위와 영광을 차지한 전륜성왕이라 할지라도 결코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그를 번민케 했다. 싯다르타는 생노병사를 벗어날 해답을 구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그 답을 찾아 사랑하는 가족과 보장된 권력과 부·명예를 버리고 출가의 길을 선택했다. 이후 6년의 세월동안 혹독히 정진한 싯다르타는 마침내 새벽녘 밝아오는 새벽을 보고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된다. 마침내 붓다가 된 것이다.

부처님 말씀은 수없이 많다. 요약하면 지혜와 자비로운 삶으로 압축된다. 한글자어 요약하면 마음[心]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닦아 구해진 지혜와 자비로 인간 존재의 근원적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설했다. 부처님이 우

리에게 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 일깨워주었다. 세 가지 진리(三法印) 중 하나인 제행무상(諸行無常,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도 존재를 바라보는 안목이다.

부처님이 태어났던 아름다운 동산, 산천 초목의 온 세상, 젊음이나 미모, 명예, 권력, 부 등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 하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바른 안목이다. 이 안목을 우리 개인이 갖추고 있을 때에는 변하는 것을 붙잡고 지켜내려 는 헛수고와 그에 따른 고통을 없앨 수 있다. 고통을 여의면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자비는 존재의 상의상관(相依相關)에 기인한다. 상의상관은 모든 것이 중중첩첩으로 연관해 존재하는 하나의 동일체라는 인식이다. 마치 내 몸 안의 모든 기관이 서로 관련하며 나를 이루듯이 일체 존재가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나와 남이 사라지고 지배와 피지배의 개념들이 사라진다. 우마 거사의 "모든 생명체가 아프므로 나도 아프다"는 말처럼 모두를 한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 나와 남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물가의 어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처럼 사람들에 대한 애투함과 걱정, 위협에서 벗어나

게 해주려는 노력까지도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부처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인간 삶의 근원적 해법을 찾아 나섰다. 누구보다 중요하고 만족할 만한 것들을 갖고 있던 태자 싯다르타였지만 아낌 없이 버리고 떠났다. 진리에의 갈등에서 비롯된 그의 여행은 보리수 아래에서 그 답을 찾았다. 그리고 모두에게 세상 존재에 대한 바른 안목을 얻도록 가르쳤다. 힘든 삶을 벗어나 자유자재하게 살아가도록 무한한 대비(大悲)를 베풀었다.

중생 각자가 불성(佛性)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아니 중생이 곧 부처라 했다. 그런 우리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궁금해 하지는 않는 걸까? 그냥 여기저기에 휩쓸리고 뒤쫓아 다니고만 있지는 않은가? 세상을 빠르게 바라보는 안목, 이른바 지혜가 내게 있을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내 삶은 지금, 조금이라도 더 자재로운가? 항상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잘해줄까만을 바라치는 않았는가? 이보다 앞서 내가 남에게,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만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본 적은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어수선한 요즘, 평생 중생을 위해 애쓰신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社說

날마다 좋은날, 부처님오신날

불기255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린 연등회가 5월 7~8일 내외국인 32만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회향됐다. 종로 거리를 지나는 제등행렬과 어우러진 외국인들을 보면 부처님 오신날은 더 이상 불교인만의 축제가 아니다.

부처님은 2600여 년 전,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했다. 이 때 부처님이 만천하에 외친 탄생계가 '하늘과 땅 사이에 나홀로 높다. 부처가 돼 고통 속

에서 해내는 모든 중생을 관세 하리라(天上天下唯我獨尊 三界皆苦我當安之)'이다. 수행을 통해 정각을 이루고, 그 지혜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부처님의 뜻에 맞춰 올해의 봉축표어는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이었다.

봉축기간 동안 나눔을 실천하고, 이를 수행으로 삼은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이 불교계에서는 최초로 한센병 환우들이 거주하는 소록도를 공식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법은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此有故彼有 此起故彼起)"는 연기(緣起)이다. 상생과 화합을 모토로 한 조계종 제 33대 집행부가 어렵고 소외된 곳을 찾았을 것은 우리와 그들이 하나인 까닭이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와 정부·여당도 한동안 서먹했던 갈등 관계를 청산하고 해빙 무드로 나아가고 있다.

한나라당 불자국회의원들이 조계사를 찾아 법회를 연 것을 비롯해, 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전통사찰의 용적률 상향과 개발분담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7일에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등행렬에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울 끝에 VIP석에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정병국 장관은 장관이기에 앞서 불자로서 직접 연등행렬에 섞여 부처님오신날을 기뻐했다.

이 날, 지승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들은 180여 일만에 정부 측 인사들 공식적으로 만났다.

8일 현재, 10일 있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정부·정치권 인사들의 대거 참사가 예상된다. 이 같은 정치권 인사들의 참석 움직임은 조계종이 "정치인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종단 방침을 내놓은 후에 나왔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덧붙여, 정치인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자성인 발언이 있는 뒤라 더욱 진실돼 보인다.

이회창 대표는 4월 27일 열린 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에서 "신자 아닌 정치인이 정치적 이점을 노리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건전하지 못하다"며 "조계종의 정치인 불초청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조계종이 민족문화수호운동과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결사를 펼침은 부처님 연기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에 있다. 민족문화수호운동을 찾는 선대와 후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함이고, 5대결사는 우리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려 함이다.

여기에 더해 한센병 환우 등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고, 정부·여당과 건전한 관계를 형성함은 우리 각자가 부처·보살행을 통해 바른 삶을 사는 길이요, 날마다 좋은날, 부처님오신날을 보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독자 제위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법향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사부대중 칼럼



묘원 박사
상좌불교한국명상원 원장

이 세상에 소중한 일은 많다. 그 중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이 매우 소중한 귀한 일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더욱 소중한 일이다. 인간으로 태어나 선한 일을 했다면 통찰지혜를 얻어 해탈을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첫 번째로 소중한 일은 31개의 세계에서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이라 했다. 이것은 매우 희귀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생명이 사는 세계는 육계, 색계, 무색계로 모두 31개가 있다. 그 중 육계는 감각적 욕망이 있는 세계로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의 세계가 있다. 그 위로 우리가 사는 인간계와 욕계천상이 존재한다.

육계 중에서 가장 낮은 세계는 사약도이다. 사약도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만이 존재한다. 이곳에서는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수명이 결정된다. 대개의 생명들이

사약도에 있다. 이곳에서는 지옥도 여러 개로 나뉜다. 하나의 지옥에서 수명이 다하면 인간계로 태어나기보다 다시 다른 지옥으로 자리를 옮겨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사약도 다음에는 인간과 욕계천상이 존재한다. 인간은 오계를 지킨 선과보로 태어나고, 욕계천상은 믿음과 보시와 지계를 지킨 과보로 태어난다. 이렇게 태어난 까닭에 인간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또,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 수명이 결정된다. 하지만 욕계천상은 그 천상에 해당하는 일정한 수명이 미리 정해진다. 그 위에는 선정수행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색계천상과 무색계의 천상이 있다.

31개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행복과 불행에 함께 경험할 수 있다.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자기 의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더 향상시켜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을 더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 인간의 마음은 존재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업과 악업을 쌓을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해 스스로 지옥에 갈 수 있는 행위를 할 수도 있으며, 최고의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두 번째로 더 소중한 일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선한 행위를 하여 지금도 행복하고 지금 이후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지금 보다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과거의 선한 행위의 결과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항상 새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과보를 받아 행복하고, 선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 선하지 못한 과보를 받아 불행하다.

하지만 지금보다 행복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괴로움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고통을 겪으며, 그 사이에 우비고뇌가 삶을 압박한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행복은 괴로움을 바탕에 두고 일시적으로 맞보는 달콤한 감정일 뿐이다.

세 번째로 가장 소중한 일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통찰지혜를 얻어 괴로움뿐인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난 궁극의 사명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지혜를 얻어 괴로움의 윤회를 끝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중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중도는 감각적 쾌락이나 극단적 고행을 버리고 팔정도를 직접 실천하는 것이다.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실천하면 지혜의 눈이 열려 사물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하고, 본질적으로 불만족이며, 여기에 자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집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업을 짓지 않아 윤회가 끝나는 해방을 맞이한다.

윤회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내체 수행을 통해 무아를 아는 통찰지혜가 일어 나야한다. 내가 있다고 아는 한 영원히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괴로움뿐인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이라 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붓다께서 이 길로 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길로 와서 괴로움의 순환을 끊으라고 붓다는 45년간 가르침을 펴셨다.

사람으로 태어나 할 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일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오시물 연불닷컴 실시간 뉴스 톨타뉴스 불교포탈 부다피아 소형물 연불닷컴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5일장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효도선물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케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신제품

MSM Glucoid & Omega3 Cream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케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케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관절이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백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벌케어크림을

발라주겠다고 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관절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ml×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화제의 신간 한국최초 계절로 풀이한 사주팔자

춘하추동

당신이 태어난 계절은? 직업은? 운명은?

흔히 3박자가 맞아야 대운길격(大運吉格)이라고 한다. 당신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운명의 3박자는 무엇인가?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일년의 기둥이 되고 있는 이 4계절은 각 3개월씩 나누어져 운명의 흐름이 각각 달라진다. 당신은 어느 계절에 태어났으며, 그 계절의 운세의 흐름이 당신의 운명에 어떤 작용을 할까?

사람을 깊숙이 꿰뚫어 보는 법 / 21C 신개념 행복 부자되는 사주팔자

■ 甲長慧印 이준용 지음 / 신국판 / 340쪽 / 정가 20,000원

육임이 보인다 파춘 지음 / 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계 풍수사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육묘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철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일,전효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1권 880쪽 2권 680쪽/각 권 5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명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활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 나뻐를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곽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